

개혁주의 기독교교육관의 관점으로 본 코메니우스의 교육특성과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omenius' Notion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김광순(Kwangsoon Kim)*

Abstract

The following research explores the impact of John Amos Comenius and his theory on education on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by evaluating it through the lens of Reformed theology. To this end, it first investigates his theory on education and proceeds to evaluate it from that of Calvin and the followers of New Calvinism.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examining Comenius' theory on education include the purpose of education, that all are called by God to learn thoroughly about everything within God's creation. All are especially called to learn about the truth so that they are able to glorify God in not only this life but the next. A comprehensive look at the content of education reveals that one needs to be instructed in the areas of creation, the human, and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an integrative and complex methodology on education is suggested, one that analyzes, synthesizes and compares such concentric theory on nature and sense.

When one evaluates Comenius' theory on education against that of Calvin and other Reform theologians, it can be discovered that the purpose of Calvin's theory on education focuses on all being instructed in the ways of faith so that they are led to a confession of faith, salvation, and true sanctification, glorifying God in all they do. When one compares such theory with that of Comenius, who asserted that all are called to glorify God through instruction, it is apparent that both agree on the glorification of God as being the end-goal of all education.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purpose of education at once focuses on the instruction of theology for the congregation within the church while the subject of Comenius' theory is education for all of the creation. Therefore, Comenius' comprehensive purpose of education falls more in line with the New Calvinists

* 대신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33, light405@hanmail.net
2019년 01월 04일 접수, 03월 18일 최종수정, 03월 20일 게재확정

of the 20th century.

The content of Comenius' understanding of education can be said to be a holistic and complex approach to spirituality, virtue, and intellect. This content reflects a reformist worldview that covers all aspects of the created world as Calvin's understanding of education also included spirituality, virtue, and intellect, one that did not neglect all aspects of creation as well as those of the spiritual world. The new Calvinists are also similar in that their education seeks to encompass all aspects and cultures of the created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Christian worldview. The difference between them may be that Comenius had a deep interest in the created world while the reformist New Calvinists had a deeper interest in culture.

What Comenius has suggested in terms of the method of education include those of the natural and sensory, concentric, analytic, synthetic, and comparative. Calvin, on the other hand, focused on the methods of the spiral, three-dimensional, and the iterative, aiming at a complete learning experience. The concentric method of Comenius and the spiral method of Calvin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However, Comenius' teaching method was more developed in that it was more natural and psychological that can align more effectively with modern education. Twentieth-century reformist educators also regarded the teaching methods that match the principles of nature that Comenius discussed as the principle of creation. Therefore, it must be concluded that the method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as outlined by Comenius' theory are in tune with that of Calvin as well as the New Calvinists.

Even in the mids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predicted to undergo rapid changes, once one clarifies one's purpose in life as well as the purpose of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Reformist worldview, one will be able to acquir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a biblical worldview in all aspects of education. As the Cultural Mandate is still valid in the age of change, all aspects of the created world must be present in the content of education. Spiral, stereoscopic, and perfect learning methods are useful in that they can lead one to understand the core of the Gospel even before the present epochal change.

Key Words : Comenius' theory on education, the perspective of reformed education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예측불허의 변화가 예상된다. 글라우스 슈밥(2017. 260)은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도구임을 항상 잊지 말아

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제 곧 인공지능의 기계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인류는 곧 여러가지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된 핵융합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결과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교육도 이 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혼돈의 시대에 바르게 교육하는 길은 불변의 진리인 성경적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관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문화와 교육 전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코메니우스는 17세기를 살아간 교육자로서 그 당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한 교육학자이다. 코메니우스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현대교육의 창시자, 평화교육, 평등교육, 평생교육, 통합교육을 제시한 우주적 전인교육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이숙중, 2007). 코메니우스가 살았던 17세기는 스콜라사상의 영향으로 이성이 강조되고, 문예부흥의 영향으로 인간성이 강조 되었고, 종교적인 갈등과 분열, 새로운 과학운동의 발흥 등을 통한 중세문화에서 현대과학으로 이행되는 전환기였다. 그 시대에 코메니우스는 성경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종합하려는 시도로서 범지학 사상의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이숙중, 1999, 318).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서 언제나 확실하고 변함없이 안전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자 노력한 교육 철학자였다(김광순, 2014).

코메니우스의 교육특성과 시사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코메니우스 신앙교육 방법의 주일학교 교육의 적용연구(천정식, 2010)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으로 본 청소년교육연구(김현우, 2014)가 있다. 전자는 코메니우스의 신앙교육 방법을 주일학교 교육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즉, 주일학교에 적용되는 프로그램들과 교사 역할의 문제점에 대한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을 통한 개선방법으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통전적인 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는 코메니우스의 인간론을 적용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연구였다. 코메니우스의 인간이해와 범교육론을 적용한 통전적인 이해와 전인교육을 제시한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교육특성과 시사점을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면 내용과 방법도 목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교육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언제나 목적이 분명하다. 코메니우스의 유작 『인간세계개선에 관한 일반담론』(*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io Catholica*)¹⁾이 발견된 이후에 그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한 교육론을 펼친 교육학자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¹⁾에서는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관하여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고찰하고 이를 개혁주의 교육관으로 평가하여 현 시대의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으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변화의 시대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임스 스미스(J. K. A. Smith, 2016, 25)는 『하나님나라를 욕망하라』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교육도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의 실천을 욕망할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교육은 결국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전 생애 전 영역에서 매순간을 바른 예배자로 살아 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비록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기독교교육이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세대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II. 코메니우스의 교육관

코메니우스(J. A. Comenius 1592-1870)는 보헤미아 형제단 교도의 가정에서 두 명의 누이를 둔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13세에 부모와 누이를 페스트로 잃고 고모의 집에서 형제단 공동체가 경영하는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 후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헤르본(Herborn)의 닛소 아카데미(Nassau Academy)와 개혁교회의 학문 중심지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 하였다.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모교인 문법학교의 책임자로 일하였다. 그 후 지방교회의 담임 목사직과 교회 부속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면서 위기에 처한 조국의 장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교재를 편찬 하였다.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수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영역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능을 불문한, 완전한 가르침의 기술로 빠르고, 즐겁게, 철저하게, 현세와 내

1)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와 대신대학교 신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목회신학원에서 강의한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어떤 시대에도 유용하고 명쾌한 교수원리를 보여주는 책이다(Comenius, 1910, 3). 코메니우스는 그의 저서 『범교육학』에서 세상을 학교로 보고 태아학교, 유아기학교, 아동기학교, 청소년학교, 청년기학교, 장년기학교, 노년기학교, 사망의 학교로 구분하여 일평생동안 영원한 지혜를 구하는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김광순, 2014), 피조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의 교육을 목적, 내용, 방법의 순서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1.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무엇보다 진리를 바로 배워서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제외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고, 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자이므로 모든 사람이 지혜와 덕성, 신앙으로 강화되기까지 양육 받아야 한다. 귀족이나 평민이든, 도시나 시골에 거주함과 무관하게, 빈부나 성별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을 받아서 현재생활에 유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분, 빈부, 거주지를 불문하고 그 어떤 사람도 향상가능성과 당위성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고, 여성과 약한 지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수록 더욱 교육이 필요함으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Comenius, 1999, 88).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그의 시대를 상당히 앞서간 교육적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Comenius, 1910, 67).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허망한 욕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진 코메니우스는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원리에 기반을 둔, 지식의 종합적 체계를 모색하였다. 그는 학문의 다양한 분야들의 단편적인 지식들은 개

인의 전인격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진보에 공통적인 이해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건강과 체력의 발달, 지력, 언어, 행동, 덕성의 발달, 영성의 발달 등의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Comenius, 1984, 76-115). 이러한 지식의 종합적 형태를 “범지학” 혹은 “범지혜” 라고 한다.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신학 및 신앙의 바탕위에 형성된 것으로 그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코메니우스는 칼빈주의 아카데미인 헤르본에서 수학할 때부터 범지학의 연구와 그 이론의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코메니우스에게 영향을 준 젊은 신학자 알스테트는 모든 학문 분야를 집대성한 『지식의 통합』(*Encyclopaedia Cursus Phijosophici*, 1608)과 『모든 학문의 통합』(*Encyclopaedia Omnium Scientiarum* 1630)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 두 저서는 성경을 모든 다양한 지식의 규범으로서 최고의 권위로 규정하고, 모든 학문의 백과사전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이숙중, 1999, 317). 코메니우스는 이 저서들의 영향으로 범지학 사상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당시 사상가들의 통합 이론의 영향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종합하려는 시도로서 범지학 사상의 연구와 저술에 전념한 것 이었다. 코메니우스는 범지학 사상과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빛의 길』(*the Way of Light*)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공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범교육 사상에 의한 범대학(Universal College)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범대학은 코메니우스가 그의 저서 『빛의 길』에서 말하는 우주의 빛의 길을 위한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곧 범교재, 범학교, 범대학, 범언어 중의 하나이다(Comenius, 1999, 185). 범학교와 범대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범교재는 세상, 인간의 양심, 성경이며, 범언어는 우주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통한 계몽과 양육, 도덕적 의식의 향상, 모든 인류의 영구적인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범지학의 목적을 이루어 전 세계에 만연되어있는 무지, 불확실성, 무익한 논쟁의 소란과 흥분, 투쟁과 전쟁이 중지되고, 빛과 평화와 종교의 시대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였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그의 교육 사상인 범지학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범지혜는 한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우주적인 통일과 우주전체의 질서와 관계된 지혜이다(Comenius, 1999, 59). 범지학은 하나의 진리와 질서로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모든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여 하

나의 학문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지학은 오늘날의 융복합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융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코메니우스는 창조, 타락, 회복의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며, 그것들의 목적과 유용성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김광순, 2014). 그러므로 이 지혜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와 구별되며, 우주전체를 아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범지학으로 표현되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이 하나님중심, 성경중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메니우스 자신은 성경주의자였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코메니우스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당시의 모든 사상과 지식들을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인간관으로 통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정일웅, 2003b). 이것은 모든 인류가 성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이기도 하다. 코메니우스는 그 시대에 이미 포괄적인 우주적인 통합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으로 표현되는 교육의 목적은 첫째,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Comenius, 1999, 150). 둘째,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인간의 지성적인 능력, 도덕적인 고결성, 영적인 경건을 함양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우주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창조 법칙에 일치하는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을 비취주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기능을 계발하여,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종교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코메니우스의 교육내용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교육 내용을 지성, 덕성, 영성으로 표현하길 좋아하였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로 보았다. 하나님은 위대한 저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창조세계와,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리고 셋째 자연세계의 책에 관한 해

설서로서, 그리고 내면세계의 책인 양심의 지침서로서의 성경이라고 보았다(Comenius, 1999, 63-64). 따라서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교육의 내용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인간 관계에 관한 것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가 첫째 교육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으로 인간의 지성 교육에 필요한 것이다. 우주와 수많은 별들 속에 세상만물의 만질 수 있는 것들 속에, 우리의 육아실이며 양육 장소인 지성의 학교인 사물의 학교가 있다(Comenius, 1910, 33).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피조물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책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교육내용인 것이다.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상 자체는 인간의 최초의 학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학교에 입학 하게 된다. 이 학교를 코메니우스는 자연의 학교, 또는 사물의 학교라고 부른다. 그는 인간 생활과 교육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자연에서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들은 이 내용들을 배우기 위한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을 부여 받았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 자연의 원리는 사물들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쉽게, 즐겁게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언어 교육, 특히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언어의 연구와 학습이 모든 지식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언어 자체가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가 사실과 사물의 지식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가 되고, 지식과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 학습은 객관적인 사실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시도해야 하며, 사물을 떠나서 낱말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물과 낱말을 함께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Comenius, 1910, 203). 학습되는 모든 지식은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범개학론에서 범지혜의 앞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론, 실천, 그리고 바른 사용의 세 단계이다. 이론(theoria)이란 ‘사물’ 자체에 관해 아는 것으로, 그 사물의 상태와 성질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단계인 실천(praxis)이란 사물의 존재 근거와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아는 것의 핵심이며 도달점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사용가치와 그 사물의 존재목적에 대해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사물의 존재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바른 사용(ehresis)은 그 사물의 목적에 관하여 아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일웅, 2003a). 이것은 결코 인간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배워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지성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인 것이다.

코메니우스가 제시한 두 번째 교육내용은 인간과 소명의 학교로 덕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학교(Metaphysical School)를 말하며, 이 학교의 교육내용은 자연과 사물의 학교처럼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인간 자신의 마음, 혹은 마음에 새겨진 본유적인 개념들과 본능과 기능들과 같은 무수한 속성들로 특정 지우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원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지혜롭게 되어 가능한 한 많은 사물들을 알기를 원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므로 가장 중핵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다른 사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으므로 인간의 학교, 소명의 학교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소명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된다.

코메니우스의 세 번째 학교는 영성으로 표현 되는 성경과 하나님의 학교(Hyperphysical School)이다. 이 학교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가르칠 수 없으나, 모든 사물들 위에 있는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주제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과 인간의 귀로 듣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영(靈)을 통하여 계시할 수 있는 것들(고전 2:9-10)이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는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문제들을 감각 기관으로 혹은 이성으로 탐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점이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 그 당시 철학자들을 초월한 코메니우스의 사상이다. 이 학교의 교재들은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제시하였던 영감이며, 그리고 교회의 활용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감을 받고 저술된 신령한 저서들이다. 이와 같은 하늘의 신탁(神託)들의 교사이자 중요한 해설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도, 이성도 하나님의 영과 동등한 기관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계시된 놀라운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 그 때 불가능한 일들을 시도하며, 약속된 불가시적인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세 번째 책, 즉, 자연세계의 책에 관한 해설서로서, 그리고 내면세계의 책인 양심의 지침서로서 성경책을 주신 것이다(Comenius, 1999, 64).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사물들에게까지 빛을 비춰주시며, 모든 사물들의 참된 목적과 활용방법을 가르쳐주신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지성의 책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위에 만약 사람들이 성경책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한다면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권의 책으로부터 참 지혜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세 권의 책은 저자가 동일함으로 분명한 일치점이 있고, 그 중 한 책에 불명료한 점이 있게 되면 나머지 두 책에서 제시된 유사한 실례(實例)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Comenius, 1995, 32).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책들인 자연의 책,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관념의 책(양심의 책), 그리고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범지학이라고 명명한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마다 자연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책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현재와 미래의 생을 준비하기 위해 알고, 믿고,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망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공된 가장 보편적인 종류의 책이며, 가장 엄격한 질서의 책이며, 가장 완전하게 준비된 책이라고 말한다(Comenius, 1999, 196). 이 책의 목표와 목적은 사람들이 학식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과, 모든 사물들의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그 수단의 정당한 활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범지학의 책은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므로 처음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까지,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지상의 학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학교로 완성에 이를 수 있으며,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순화(純化)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학교는 현재의 생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학교를 거쳐 가야 한다. 이 학교들의 시작은 사물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종교나 삼단논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각기관을 사물들에 접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수한 대상들을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같은 감각기관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학교와 하나님의 학교는 질적인 면에서 고상하고 심층적이어서 인간은 사물들처럼 수가 많지 않지만 세상보다 더욱 고상하며,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인간보다 더욱 고귀하다. 사물의 학교에서의 교재들과 교사들은 인간에게 제시되는 모든 사물들이지만, 인간의 학교에서는 인간 자신에게 제시되는 인간이며,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첫째 학교에서 사물 자체가, 두 번째 학교에서 인간 자신이, 세 번째 학교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르친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사물에 의하여, 인간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배운다(Comenius, 1999, 48). 코메니우스는 이 세 학교를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학교로 보았다.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피조물로 이루어진 창조세계, 인간의 오성으로 이루어진 정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세 가지 책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Comenius, 1996, 154).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들이 태양처럼 온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육의 내용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과 인간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이므로 코메니우스의 교육내용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다(정일웅, 3003c).

3.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학적인 방법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능을 불문한, 완전한 가르침의 기술이며, 빠르고, 즐겁게, 철저하게, 현세와 내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어떤 시대에도 유용하고 명쾌한 교수 원리로 간주한다. 「대교수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적게 가르치고도 많이 배우게 하며, 필요 없는 수고 대신 자유와 즐거움,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서두에 명시하고 있다(Comenius, 1910, 4). 코메니우스는 모든 교육제도와 체계가 자연 사물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첫째교육의 방법을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서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자연의 성장 단계와 수용력에 적

합하게, 자연과의 비교유추법이나 병행이론을 활용하여 교수법의 합리적 모형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다(이숙중, 1999, 283). 둘째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상의 특징은 동심원 교육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심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으며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며 쉽게 표현되고, 각각의 단계가 바로 이전의 단계 위에 확고히 쌓여지고, 동일한 기본 개념들이 각 단계마다 계속 반복되고 무한하게 확장된다. 코메니우스가 주장하는 셋째교육의 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교수방법을 개혁하고, 그 이론과 체계를 새 교수법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분석, 종합, 비교연결법이다. 즉 코메니우스가 자신의 교육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은 자연과 감각에 의한 방법, 동심원적 방법, 분석, 종합, 비교연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자연의 모든 것을 감각을 통해 교육할 것을 강조한다. 세상은 가장 작은 세부적인 것까지 질서에 의하여 움직인다. 먼저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시간과 장소, 무게와 크기 등 모든 것이 그 위치와 힘을 유지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지킨다. 천체는 이처럼 놀라운 질서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자연은 적절한 시간을 지키며, 정원사도 계절에 알맞게 일한다. 학업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모든 교과는 분명한 단계를 따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이나 혼돈 없이 은유와 과장이 없이 제시되어야하며, 무엇을 가르치든지 참된 본질과 기원에 관계시켜야 한다. 기원, 본질, 원인을 통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이러한 것들은 이해의 안내자가 된다. 자연의 방법과 생겨난 과정에 따라 설명하면 쉽고 분명하게 이해된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자연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자연을 안내자로 삼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다(Comenius, 1910, 100). 자연의 질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지배적인 원리이며, 이 원리가 철저하게 확보되면 교수 기술의 과정은 자연의 과정처럼 쉽고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자연의 모든 것을 감각을 통해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그가 제시한 교사를 위한 황금률은 모든 것을 감각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은 시각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청각 앞에, 냄새나는 것은 후각 앞에, 맛볼 수 있는 것은 미각 앞에, 만질 수 있는 것은 촉각 앞에 가져와야 하는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되는 것들은 처음에 감각에서 오며, 지혜의 시작은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를 지각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사물이 감각에 의해서 파악 되었을 때 언어가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둘째,

지식의 진실성과 확실성이 다른 무엇보다 감각의 증거에 의존하는데 그 이유는 사물은 감각에 새겨지고 이해는 감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새겨지기 때문이다. 감각에서 끌어낸 지식은 신뢰할만하고, 실험적 추론과 타인의 주장들은 항상 감각에 호소되며, 추론 과정으로 끌어낸 결론이 실제의 예들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진실 되고 확실한 사물지식을 심어주려면 모든 것이 실제 관찰과 감각을 통한 지각에 의해 학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각은 가장 믿을만한 기억력의 시종이므로 감각을 통한 지각의 방법을 모든 교과서에 적용한다면 한번 습득한 지식을 영구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Comenius, 1910, 1). 즉, 설탕 맛, 낙타를 본 것, 새소리를 들은 것, 로마에 가본 것 등은 영구히 남는 것과 같다. 코메니우스는 건지 못하는 아이에게 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처럼 지각을 개발하기 전에 의지를 개발하려는 것은 시간낭비 일뿐이며, 주위에 있는 사물을 알기 전에 논리학, 시, 수사학, 윤리학 등을 가르치는 학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Comenius, 1910, 257).

다음으로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은 동심원적 교육방법이다. 동심원적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같은 교과내용이 태아에서 죽음의 학교의 생도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진다. 동심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으며,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고 표현되는 지식의 영역은 무한하게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각각의 단계가 바로 이전의 단계위에 확고히 쌓여지고, 동일한 기본 개념들이 각 단계마다 계속 반복되고 심화된다. 그러므로 일반 원리가 먼저 설명되고, 그 후에 세부적인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사물의 모든 부분은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순서와 위치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Comenius, 1910, 189-192). 동심원적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교육을 교수학의 철저성의 원리에 따라 유용한 내용을 가르치되 기초를 철저하게, 세심하게 가르쳐야하고, 그 기초위에 다음 것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교과를 세분하여 배운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동시에 유사점을 강조하고, 연결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통하여 기억 속에 고정시켜야한다. 그리고 적절한 단계를 정해야한다. 따라서 교육은 빠를수록 좋고, 젊은 때에 공부를 해야 하고, 연령에 알맞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그 형성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특수한 것으로 끝을 맺으므로, 교육에서도 학문전체의 개론을 가르치지 않고 세밀한 분야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한 분야의 지식과 다른 분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인식시킨 후에 부분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 학문, 기술도 단순한 것부터 가르쳐 전체를 개관하게 한 후에 규칙이나 사례들을 제시하여 지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 후에 예외적인 것, 불규칙적인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주석을 사용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동심원 교육에서는 기초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기초부터 철저하게, 간략하게, 체계 있게 가르쳐져야 하며, 사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자연적으로 결합된 모든 것은 결합시켜서 가르쳐야 한다. 코메니우스는 철저하게 이해시키기 전에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리와 기초위에 심화·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심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동심원 교육방법은 교수-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원리이며, 학생의 마음에 맞고, 쉽고, 즐거운 교육방법이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교육을 마음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하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 준비를 한 후에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하여 너무 많은 것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령에 맞게 하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동심원 교육방법은 영유아기부터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분석 교수학』은 그의 새 교육이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리의 전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기존의 교수방법을 개혁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이론과 체계를 새 교수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분석, 종합, 비교연결법을 개발하였다. 『분석 교수학』의 기본원리들은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앞서 와야 하고, 일반적인 것을 특별한 것보다 먼저 제시하고, 항상 모든 구조는 그 위에 세워질 구조의 중심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을 요구한다(Comenius, 1953, 24). 분석적 방법이란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분석하여 지식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실제적인 지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로부터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나뉘지지 않는 것은 정신과 그것 자체를 혼란하게 만든다. 분석적 방법이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으로 형성되는 자연의 원리에서 도출된 것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물을 분석하여 지식을 얻는 원리이다. 그리고 부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유익도 생기지 않고,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지 통찰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부분을 적합한 전체로 재결합시키는 종합이 필요하다. 자연사물의 각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과 결

합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는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이숙중, 1989). 부분이 다시금 올바른 질서를 갖추고 서로 결합된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 소용되며 어디서 분할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결합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에 의하여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코메니우스가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무비판적으로 베이컨의 방법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코메니우스가 베이컨에게서 받았던 영향은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이었다. 코메니우스는 실제로 베이컨의 「신기관」은 자연세계만 해당한다고 제한했다. 베이컨의 「신기관」은 현대의 변증법적이며 사변적인 사고에 반하여, 사건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사고방식이었다(김기숙, 1999). 그리고 분석, 종합만으로는 범지혜인이 되는 인간적인 삶으로의 인도, 즉 행위의 인식을 포괄하는 방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코메니우스는 비교연결법을 착안하였다. 비교연결은 한사물의 전체와 다른 사물 전체의 관계를 비교·연결함으로써 부분과 종합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코메니우스가 독창적으로 제창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분석에 의해 사물의 부분을 알게 되고, 종합을 활용한다면 부분을 더욱 완전하게 알게 되고, 혼합을 첨가하면 부분들을 가장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비교연결법은 지식과 삶을 연결시키는 방법론이며, 분석적인 방법은 발견을 위해, 종합적인 방법은 성취의 검증을 위해, 그리고 혼합적인 방법은 양자를 위해 유용하다고 하였다(Comenius, 1995, 116-117). 분석, 종합, 비교연결법의 교육방법론을 통해서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수용하면서도 그들을 초월한 코메니우스의 과학적 교수법은 그의 독특한 교수법이다. 코메니우스는 기존의 교수방법과 교육과정의 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과학정신인 합리적인 관찰과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연법칙들과 원리의 기초 위에서 근대교육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준 교수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러한 방법론을 창안하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식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 고자하는 관심에 기인한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의 발견과 탐구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방향에서 항상 전체를 유지하는 통전성(統全性)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숙, 1999).

이상에서 논의한 바,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워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세계의 책, 인간내면의 책, 성경의 내용으로, 자연과 감각에 의한 방법으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학습하고, 이 모든 것을 분석, 종합, 비교연결 하는 교육방법론을 제시한 것 이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교육의 내용은 지성, 덕성, 영성의 통전적인 것이며, 영성을 중핵으로 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결국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방법도 목적을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대한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평가

세계의 기원과 의미,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인 개혁주의 세계관은(Wolters, 1992, 23) 16세기 종교개혁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엄밀하게 본다면 알프스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이미 있었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칼빈(Calvin)과 19세기의 흐룬 판 프린스터(G. V. Prinster)와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그리고 헤르만 도예베르트(H. Dooyeweerd)를 비롯한, 20세기 네덜란드계의 신칼빈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기독교적 관점이다. 이제까지 논의해 온 코메니우스의 교육 특성을 개혁주의 관점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평가해보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함의 점을 발견하고 이를 현시대의 교회교육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개혁주의 교육의 목적

칼빈의 신학과 교육사상으로부터 형성된 개혁주의 세계관은 교육의 분야에서도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공동체와 자녀들의 기독교신앙교육을 위해 교리교육서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대표적인 문서인 칼빈의 제네바교회의 교리문답서는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로, 그리고 장로교회의 경우 웨스트민스터교리문답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교리문서들을 통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이면서 또한 개혁주의 세계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형성자

로 간주되는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고, 생의 모든 국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영향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예수께서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Kistemaker, 1982, 155).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주권” 등의 경구들로 표현되어 잘 알려져 있다. 칼빈은 이러한 사상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칼빈의 저작들 중 많은 부분이 교회의 정립과 신앙의 총체적인 해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의 저작들은 교회의 신앙교육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칼빈의 중요한 신앙교육 문헌으로 인정받는 『기독교 강요』의 주요한 의도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세레파와 동일시되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개혁 신앙을 변증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책은 일반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된 신앙교육 문서였다. 특히 초판의 『기독교 강요』는 경건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구원의 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조성국, 2000). 칼빈은 이러한 신앙교육의 목적으로 『제네바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 및 신앙고백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율법, 신앙, 기도, 성례, 교회와 국가의 질서 등을 가르치려하였다. 그리고 『제네바교회의 신앙교육서』를 통해 신앙, 율법, 주기도문, 성례 등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려 했다. 더 간단한 교육자료로 “프랑스어 알파벳”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성찬을 받고자하는 아이를 위한 질문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조성국, 2000). 칼빈의 신앙교육의 주된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리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아세례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신앙고백과 아울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천에 대하여 서약하도록 했고,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동들과 청소년들도 입교를 앞두고는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 강용원(1978, 32)은 칼빈의 신앙교육의 목적을, 첫째, 참된 신앙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도록 하고, 둘째, 성경적 교리, 윤리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셋째, 신앙공동체의 동일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

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사상은 20세기 개혁주의 계통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전수 되었다. 대표적인 학자인 존 반 다이크(J. V. Dyk, 2004, 51)는 참된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목적에 따라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의 실재를 비판적으로 부단히 성찰해야 할 것을 촉구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문제 앞에 교육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해로 반 브루멜론(H. V. Brummelen, 2006, 75)도 성경의 창조명령인 문화 명령에 따라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대 명령과, 위임 명령인 섬기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과 교육사상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의한 교육의 목적은 신앙공동체가 모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참된 경건을 삶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 모두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신앙고백은 변화하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나 이단의 유혹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2.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은 경건의 교리였다.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구원에 대한 것과 윤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장화선, 2002), 이모든 것은 주지적인 것이어서 지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육내용은 영성, 덕성, 지성을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경건이었고,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경건대전으로 명시된 기독교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체계화된 교과서였다. 기독교강요 초판(1536)의 라틴어판 제목은 “경건의 총체적 가르침과 구원교리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강요,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최근에 출판된 책. 프랑스 왕 전하에게 신앙고백으로서 드리는 헌사”였다(Calvin, 2002, 13). 칼빈은 신앙고백서나 기독교 신앙교육의 내용들을 종종 ‘경건의 규칙’ 혹은 ‘경건의 교리’라고 표현하였다(조성국, 2000, 582).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섬김의 태도와 삶을 뜻하는 종교의 삶과 실천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였다. 그래서 참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존중하고, 주님의 의를 가슴에

안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순진하고도 참된 열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경건은 기독교신앙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경건을 기독교신앙의 혼, 정신적 에너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조성국, 2000, 584).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타락함으로 미신이 창궐하게 되었고,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참된 경건이 세상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칼빈의 진단이다. 칼빈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에 집착한 것은 참 지식 없이는 종교와 교회도 없고 구원조차도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곳에는 참된 경건도 없고, 참된 종교도 존재할 수 없다(조성국, 2000, 586). 칼빈이 참지식의 이해에 경건을 연관시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 분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예배와 섬김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칼빈이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신앙의 교리 이해와 아는 것을 삶속에서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으로 신앙이 사변적인 이론에서 머물지 않게 한다. 이러한 참된 경건은 매순간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의 실천에서 나온다. 칼빈이 기독교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 혹은 균형 있게 가르치기 위해 집필하였던 기독교강요와 교리교육 문서들은 내용상 대단히 균형 잡힌 것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모두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교육은 건전한 교리의 이해를 통하여 시작된다고 보았다. 무지와 거짓된 교리와 미신은 불 경건을 확산시킬 뿐이므로 그는 경건의 함양을 위해 참된 교리의 내용규명에 집착하였고, 그 내용설명을 지속적으로 심화, 증보하였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교리는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기독교신앙 전체에 대한 이해이고, 전체의 주제들 간의 균형 잡힌 이해였다(조성국, 2003a). 이러한 경건의 교리에 대한 칼빈의 논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서 유용하고 유익한 지침을 의도하고 있다. 칼빈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경건적용의 장으로 간주해왔으며, 경건이 타인들에게 증거 되어지는 방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절과 정직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칼빈의 경건개념은 경건이 개인적인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인 공의와 사랑의 실천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조성국, 2000, 589). 니콜라스 월트스토프(N. Wolterstorff, 2004, 170)는 정의와 살롬 안에서 올바른 관계의 기쁨을 발견하였고, 불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우리 가운데 살롬의 임재를 기뻐하고

살롬의 부재를 슬퍼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속에 참 경건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과의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기뻐하고 경건의 부재를 슬퍼해야 한다. 경건교육은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 한 포괄적인 기독교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칼빈의 저서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주제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실제성과 유용성을 드러내고 있다. 칼빈은 교리문답서와 기독교강요에서 십계명에 대한 실제적 해설 뿐 아니라 십계명에 포함된 기독교 윤리나 세상정치 등에 대한 해설도 기독교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칼빈의 관점에 따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서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 혹은 세계관으로 이해함으로써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제자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하였다. 칼빈은 삶의 영역에서 성화에 이르는 경건의 교육은 지식교육으로 출발하지만 지적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독교가정의 일상적 삶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의롭고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불의와 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깨우치고 정당하게 저항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시련을 감내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경건이 이러한 삶의 실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삶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연습하게 함으로 의도적인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천의 삶이 경건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조성국, 2003a). 이는 공 예배, 가정예배, 삶의 예배가 실천될 때 전 생애 전 영역에서 예배적인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매 순간 돌아갈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브루멜론은 종교적인 행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법적, 미적,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이성적, 감정적, 물리적인 모든 양상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다(H. V. Brummelen, 2000, 69). 따라서 학생들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신칼빈 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전한 16가지 양상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한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칼빈과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한 교육내용은 지성, 덕성, 영성의 전체를 실천하는 경건으로 통전적이고 복합적인 전인격을 개발하여 매순간이 예배

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혁주의 교육의 방법

칼빈이 사용한 대표적인 교육의 방법은 나선형교육과 문답형식의교육, 완전학습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리교육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라 기본부터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나 소그룹을 대상으로 입체적 문답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주요한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여 내용이 학습자의 고백이 되도록 완전학습을 시도했다. 칼빈의 교육방법은 명료한 이해가 두드러진다. 칼빈은 학생이 기독교신앙을 하나의 전체로서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초보적 형태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알기 쉽게 해석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교육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즉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동일한 진리를 심화, 확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책자 정도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전개하고자 노력하였고, 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도록 쉽고 단순하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된 강조점을 요약 정리하고 단계에 따라 심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조성국, 2000). 특별히 학생과의 문답식의 대화방법으로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교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문답 형식의 교육방법은 칼빈의 영향을 받아 개혁교회의 공적인 신앙교육서로 정착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교육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에 그대로 적용되어 신앙교육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이 되었다(조성국, 2000). 칼빈은 기본적인 기독교신앙의 내용이 단지 지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고백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복 교육을 통해 경건한 삶이 모든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학습을 시도하였다. 반복과 확인을 통한 완전학습은 지적인 이해가 마음의 확신과 고백에 이르게 하고, 경건이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삶의 실천을 의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앙교육을 가정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권면을 받았고, 학교의 교사는 신앙교육실행을 감독받았으며, 교회의 목사는 경건의 비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

이 자신의 주된 직무인 것을 알고 그 일에 몰두하도록 충고 받았다(조성국, 2003a). 교회는 신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례나 입교를 위해 신앙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였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심방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점검해야 했다. 신앙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인 것으로 불응 시에는 수찬정지 등의 권징이 있었다. 성경은 가정의 부모에게 권위와 함께 교육의 책임을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에 열성이 없거나 무관심을 보이면 책망을 받아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다(조성국, 2000).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경건의 비밀과 교리교육이 개혁주의 교육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는 오늘날과 같은 예측불허의 불확실한 시대에는 다시 확실한 말씀으로 돌아가 더욱 총체적인 삶을 경건으로 이끄는 완전 학습방법이 요청된다. 나선형교육과 문답형식의교육, 완전학습교육방법에 의한 경건교육방법은 인생초기에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시행되어 습관이 형성된다면 평생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건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은 개혁주의 공동체의 포괄적인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코메니우스가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는 교회가 학교교육을 감독했다. 교회지도자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장려하였고, 교리교육을 지도하였다. 칼빈은 일찍이 제네바 초등학교교육의 설립자이며 교육개혁자로서 보편적인 의무교육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켰다(오인택 외, 2008, 157). 그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위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개혁주의 공동체의 교육은 칼빈주의 세계관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던 네덜란드계를 통해 크게 발전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초등학교교육이 근대정신에 따라 재편될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 공동체들은 기독교학교운동을 시도하였다. 호른 판 프린스터라와 부흥운동지도자들은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합법성을 위해 노력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한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 1920년에는 국가로부터 완전한 교육의 자유와 재정 지원을 얻어내었다.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앙적 집념은 미국과 남아공화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이주한 네덜란드계 이주민 공동체에서 실험되어 발전하였다.

신칼빈주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20세기에 크게 발전한 개혁주의 교육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른 교육학자들은 근대공립학교가 추구해온 국가이데올로기 형성이 기독교세계관을 위협하는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제외하는 것이 탈종교 혹은 종교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줄곧 지적해왔다. 그것이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종교적 존재이고 삶이 종교라는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것이었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본주의 국가이데올로기는 근대정신인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신앙의 종교였다. 즉 하나님 중심적 이해를 해체하고 계시의 규범성을 몰아내고, 삶을 세계 내에 한정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이 주체가 되는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개혁신주의 교육학자들은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그 학교는 기독교세계관을 교육적 맥락에서 고백하는 교육신조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명령을 받는 주체인 부모들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다. 교사는 기독교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이고, 학생은 언약의 자녀들로서 기독교 공동체를 확립하고 발전시켜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신주의 교육관에 의한 교육의 목적은 워트링크(J. Waterink)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두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피조물의 복지를 위해 유능하고도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독립적 인격으로서의 인간 형성”을 추구한다(조성국, 2003b, 42). 또한 헐스트(J. B. Hulst)의 표현처럼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격을 구비하고, 현대사회에 대한 식견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 양성으로 표현한다(조성국, 2003b, 43). 교육과정은 창조실재의 통전적 특성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중핵인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세계관과 성경연구를 기초로,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언어숙달과 계산능력발달과 과학적 탐구력배양과 신체운동숙달과 기술과 예술적 표현능력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조성국, 2003b, 40). 이러한 내용들은 개혁신주의 실재론의 양상이론이 그 토대가 된다. 교육방법에서 교사의 교수활동과 학생의 학습이 균형 있게 강조된다. 교사의 활동은 개혁신주의 교육학자 반 다이크(J. V. Dyk)의 모형이 대표적인데 그는 지도, 드러냄, 능력부여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은 반 브루멜런의 모형이 대표적인데 그 모형에서 학습은 무대설정, 드러냄, 재구성, 초월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업의 방법에서 협력학습과 통합학습이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들로 간주되고 있다.

4. 개혁주의 기독교교육관의 관점으로 본 코메니우스의 교육 특성과 현대적 적용

이제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주의 학자들의 교육관으로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비교 평가해 보면서 기독교 교육의 특성과 시사점을 현대 교육에 적용해 보자.

첫째, 개혁주의 학자들과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의 동일한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 동일하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배우고 무엇보다 진리를 바로 배워서 현세뿐만 아니라 종말에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은 신앙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칼빈의 교육목적과 비교할 때 교육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둔 점에서 동일하다. 칼빈주의 자들과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의 차이점은 칼빈의 교육목적이 일차적으로 교회공동체 내의 교리교육에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둔 반면,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개혁주의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유럽의 근대교육에 적용되기 쉬웠을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우선적으로 기독교공동체를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교육이 회복을 위한 참된 교육이라고 할 때 그 교육은 인류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포괄적인 목적은 20세기 신칼빈주의 교육학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개혁주의자들과 코메니우스처럼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까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원래의 성경적인 세계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대 앞에서도 기독교교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면 기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올바르게 인도 될 것이다.

둘째,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교육내용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 인간관계에 관한 것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코메니우스는 지성, 덕성, 영성으로 표현하였다. 이 교

육내용은 개혁주의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비록 칼빈의 교리교육의 경우 기독교 신앙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경건의 교리와 윤리에 주된 관심을 가졌지만, 칼빈도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코메니우스처럼 창조세계와 인간문화에 대한 고전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더욱이 20세기 신칼빈주의자들이 성경과 기독교교리를 중요하게 간주하면서도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창조세계의 모든 국면과 문화를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모델과 유사성이 많다. 차이점이 있다면 코메니우스는 창조 세계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개혁주의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신칼빈주의 자들에 의해 발전해온 양상이론은 신앙적인 영적 양상과 함께 피조계의 모든 문제를 통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피조세계와 인간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가 칼빈 및 개혁주의 교육학자들처럼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 하였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지성에 기운 근대 및 현대교육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교육의 현장에서도 영성, 덕성, 지성의 전인 교육이 필요하며 영성교육이 중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의 요체는 자연과 감각에 의한 방법, 그리고 동심원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에서 찾아,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심화학습하고, 이 모든 것을 분석, 종합, 비교연결 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교리교육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부터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개인 혹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입체적 문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특히 주요한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내용이 학습자의 고백이 되도록 소위 완전학습을 시도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은 나선형 교육과정과 동심원 교육과정은 중요한 핵심은 같은 데서 시작하며, 계속적으로 심화 학습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점은 칼빈의 신앙교육은 논리적인 것이지만,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은 칼빈에 비하여 근대교육방법으로 발전한 자연적, 심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 발전적이었다. 20세기 개혁주의 교육학자들도 코메니우스가 말한 자연의 원리, 곧 학생의 신체 및 심리적 발달, 그리고 그 발달에 맞춘 교육방법을 하나님의 창조원리, 곧 법칙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발달에 맞는 교육방법, 심리적 방법의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오늘날에도 나선형 교육과정과 동심원 교육과정처럼 중요한 핵심 진리를 기초부터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고, 교리교육서의 입체적 문

답을 통하여 내용이 학습자의 고백이 되도록 완전학습을 시도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고민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속의 풍조에 따른 절대 진리의 부재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녀들의 세상의 가치관에 편성한 인간성 상실로 야기된 문제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 조류 속에서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변함없는 성경적인 토대에서 교육론을 제시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원리를 연구하고,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현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함의 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진행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은 하나님과 성경을 기초하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카테고리의 기독교세계관으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신앙에서 발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의 기초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둘째,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배우고, 무엇보다 진리를 바로 배워서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현세와 영원을 준비하고 통전적인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의도하였던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개혁주의 교육목적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 코메니우스는 교육내용을 지성, 덕성, 영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영역은 칼빈이 제시한 경건과 교리, 그리고 윤리의 특성을 인간의 특성으로 표현한 것과도 같다. 영성과 덕성에 강조점을 둔 코메니우스의 교육내용관은 과도하게 지성에 엮몰된 근대 및 현대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은 동심원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에서 찾아,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학습하고, 이 모든 것을 분석, 종합, 비교 연결하는 교육방법론 이었다. 단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심화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

교하는 교육방법은 칼빈의 교리교육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코메니우스가 자연의 원리를 강조하고 유, 아동의 발달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의 교육방법은 칼빈의 경우와 달리 근대적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은 교육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근대적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

개혁주의 관점으로 교육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도 변함없는 성경적인 관점의 세계관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과 목적, 내용, 방법을 바르게 인도 받을 수 있다. 비록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돌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기독교교육은 성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영성, 덕성, 지성의 통전적인 것이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것으로 융복합의 의미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복합의 의미는 칼빈과 코메니우스의 시대에 이미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신칼빈주의 자들의 관심이기도하다. 코메니우스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피조세계전체를 조명하려고 하였다. 현대에도 융복합학습의 목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칼빈처럼 쉽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입체문답과 완전학습의 방법으로 경건한 예배적인 삶이 실천 되도록 교육한다면 어느 시대에나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그 소명에 충실하려면 세상풍조를 따르는 데서 다시 말씀으로 개혁하여 변함없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교육특성과 시사점을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는 어떠한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교육은 가정에 부모에게 준 성경의 명령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태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통전적인 내용을 철저한 완전학습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세대들을 부모의 신앙에 따라 부모가 교육하도록 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용원 (1978). **칼빈의 교육 활동과 그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교대원.
- [Kang, Y. W. (1978). *A Study on Calvin's Efforts towards Education*. Master's Thesis.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era.]
- 김기숙 (1999). **현대 인간성 교육을 위한 코메니우스와 그룸의 교육론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 대학원.
- [Kim, K. S. (1999). *A Comparative Study on Comenius and Groom and thei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Humanities*. Doctoral Disserta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광순 (2014).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본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기독교학문연구회**, 19(3), 7-34.
- [Kim, K. S. (2014). The Worldview of Comenius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ist Worldview. *Korean Christian Studies Institute*, 19(3), 7-34.]
- 김현우 (2014).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으로 본 청소년 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 [Kim, H. W. (2014). *Youth Education According to Comenius's Philosophy on Education*. Master's Thesi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장화선 (2002). 종교개혁기의 어린이 신앙교육(요한 칼빈을 중심으로). **신학지평**, 15, 159-173.
- [Jang, H. S. (2002). Faith-Centre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a Focus on John Calvin). *Theology Critique*, 15, 159-173.]
- 오인택 외 강용원, 권용근, 김도일, 박상진, 백은미, 송순재, 오성주, 이금만, 이석철, 한춘기(2008).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Oh In-tak, Kang Yong-won, Kwon Yong-geun, Kim Do-il, Park Sang-jin, Baek Eun-mi, Song Soon-jae, Oh Sung-ju, Lee Geum-man, Lee Seok-cheol, Han Chun-ki (2008). *A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 이숙중 (1989). 코메니우스 자연관과 새 교수법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67, 944-983.
- [Lee, S. J. (1989). A Study on Comenius' View of Nature and his New Teaching Method. *Theological Thought*, 67, 944-983.]
- 이숙중 ((1999).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서울: 교육과학사.

- [Lee, S. J. (1999). *Comenius' Understanding of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이숙종 (2007). 권두언. *코메니우스 연구*, 1(1), 5-7.
- [Lee, S. J. (2007). A Preface. *A Study on Comenius*, 1(1), 5-7.]
- 정일웅 (2003a).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와 범교육의 의미. *신학지남*, 274, 9-32.
- [Jung, I. W. (2003a). The Meaning of Comenius' Universal Knowledge and Universal Education. *Theological Instructions*, 274, 9-32.]
- 정일웅 (2003b). 범지혜론과 범교육론에 관련된 코메니우스의 인간론. *신학지남*, 275, 9-40.
- [Jung, I. W. (2003b). Comenius' Theory on Humans Related to Cognitive Science and Universal Education. *Theological Instructions*, 275, 9-40.]
- 정일웅 (2003c).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이론에 대한 연구(Ⅰ). *신학지남*, 276, 55-83.
- [Jung, I. W. (2003c). A Study on Comenius' Pedagogical Theory. *Theological Instructions*, 276, 55-83.]
- 조성국 (2000). *칼빈의 신앙교육서들을 통해본 기독교신앙교육*. 한상동 목사님 9순 기념 논문집. 203-226.
- [Cho, S. G. (2000). *Calvin's View on Christian Education as Seen Through his Books on Faith*. A Collection of Theses in Honour of Rev. Han Sang-Dong's 90th Birthday, 203-226.]
- 조성국 (2003a). 칼빈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경건. *기독교교육논총*, 9, 577-597.
- [Cho, S. G. (2003a). Holiness as Understood by Calvin's Christian Education. *Articles on Christian Education*, 9, 577-597.]
- 조성국 (2003b).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 [Cho, S. G. (2003b). *Christian Worldview and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oshin University.]
- 이형부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Van Brummelen, H. W.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서울: I.V.P.
- [Lee, H. B.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Seoul: I.V.P. Trans. Van Brummelen, H. W.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Colorado Springs, Col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역 (2000).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Van Brummelen, H. W. IVP.
-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2000).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Van Brummelen, H. W. IVP.]

- 양낙홍 역 (2002). **기독교 강요** Calvin, J.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Yang, N. H. (200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Calvin, J.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eneva: Oliua Roverti Stephani.]
- 이숙중 역 (1995). **분석교수학** Comenius, J. A. (1953). *The Analytical Didactic of Comenius*. 서울: 교육과학사.
- [Lee, S. J. (1995). *The Analytical Didactic*. Seoul: Education and Science. Trans. Comenius, J. A., & Jelinek, V. (1953). *The Analytical Didactic of Comeniu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숙중 역 (1999). **빛의 길** Comenius, J. A. (1668). *The Way of Light*. 서울: 여수론.
- [Lee, S. J. (1999). *The Way of Light*. Seoul: Jesurun. Trans. Comenius, J. A. (1668). *Via Lucis Vestigata & Vestiganda*. Amsterodami: apud Christophorum Cunradum.]
- 정일웅 역 (1996). **범교육학**. Comenius, J. A., Tschizewskij, D., Geissler, H., & Schaller, K. (1965). *Pampaedia*. 서울: 여수론.
- [Jung, I. W. (1996). *Pampaedia*. Seoul: Jesurun. Trans. Comenius, J. A., Tschizewskij, D. Geissler, H., & Schaller, K. (1965). *Pampaedia*. Heidelberg: Quelle & Meyer.]
- 박세혁 역 (2016). **하나님나라를 욕망하라** James K. A. Smith(2011).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Park, S. H. (2016). *Desiring the Kingdom*. Seoul: Korean Christian Student Council Pres. Trans. Smith, J. K. A. (2011).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 김정훈 역 (1982). **칼빈주의 역사. 원리. 조망**. Kistemaker, S. *Calvinism: 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서울: 성광문화사.
- [Kim, J. H. (1982). *Calvinism: 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Seoul: Sungkwangmunhwasa. Trnas. Kistemaker, S. (1966). *Calvinism: 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Grand Rapids, MI: Baker.]
- 송경진 역 (2017). **제4차 산업혁명**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울: 새로운현재.
- [Song, K. J.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Serounhyunjea. Trans.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 Crown Business.]
- 김성수 역 (2004). **가르침은 예술이다** Van Dyk J., & Dordt Press. (2000). *The Craft*

- of Christian Teaching. 서울: I.V.P.
- [Kim, S. S. (2004).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Seoul: I.V.P. Trans. Van, D. J., & Dordt Press. (2000).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Sioux Center, IA: Dordt Press.]
-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1986). *Creation Regained*. 서울: I.V.P.
- [Yang, S. M. (2004). *Creation Regained*. Seoul: I.V.P. Trans. Wolters, A. M. (1986). *Creation Regained: A Transforming View of the World*. Leicester: Inter-Varsity.]
- Comenius, J. A. (1910). *The Great Didactic of John Amos Comenius*. trans. by M. W. Keatinge. Whitefish: Kessinger Publishing.
- Comenius, J. A. (1984). *The School of Infancy*.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Ernest M. Elle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olterstorff, N., Joldersma, C. W., & Stronks, G. G.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Co.
- 천정식 (2010). **코메니우스 신앙교육 방법의 주일학교 교육에의 적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Chun, J. S. (2010).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menius's Educational Method for Sunday School*.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논문초록

개혁주의 교육관의 관점으로 본 코메니우스의 교육관

김광순 (대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개혁주의 교육관으로 평가하여 현 시대의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대하여 검토 하였고, 이를 칼빈과 신칼빈주의 자들의 교육관으로 평가 하였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통하여 얻은 결론 가운데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무엇보다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내용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과, 인간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의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자연과 감각에 의한 방법, 동심원적 방법, 분석, 종합, 비교연결 하는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혁주의 교육관을 구성하고 있는 칼빈과 개혁주의 학자들의 교육관으로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평가해보면 칼빈의 교육목적은 신앙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목적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워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을 비교할 때, 교육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칼빈의 교육목적은 일차적으로 교회공동체 내의 교리교육에 맞추어졌으나,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포괄적인 목적은 20세기 신칼빈주의 교육학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내용은 영성, 덕성, 지성의 전인적이고 복합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내용은 창조세계의 모든 양상을 다루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칼빈의 교육내용도 영성, 덕성 지성으로 피조세계와 인간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신칼빈주의자들도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창조세계의 모든 국면과 문화를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 내용과 유사하다. 차이점

은 코메니우스가 창조세계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개혁주의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코메니우스가 교육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은 자연과 감각에 의한 방법, 동심원적 방법, 분석, 종합, 비교연결방법이다. 칼빈의 교육방법은 나선형 방법, 입체문답 방법, 반복학습을 통한 완전학습 방법이다. 코메니우스의 동심원적 방법과 칼빈의 나선형적 방법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분석, 종합, 비교연결법은 칼빈의 입체문답 방법의 완전학습과 유사성이 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방법은 칼빈에 비하여 근대교육방법으로 발전한 자연적, 심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 발전적이었다. 20세기 개혁주의 교육학자들도 코메니우스가 말한 자연의 원리에 맞춘 교육방법을 창조원리 법칙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발달에 맞는 교육방법, 심리적 방법의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은 칼빈과 신칼빈주의자들의 교육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칼빈과 코메니우스처럼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교육의 전 과정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화 명령의 소명을 위하여 피조세계의 모든 양상의 총체적인 것이 교육의 내용이어야 한다. 나선형과 입체문답과 완전학습교육방법은 현 시대적 변화 앞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완전학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주제어 : 개혁주의 교육관, 코메니우스의 교육관

